

죽음 조차 아름다운 곳



“길만 다를 뿐 종파간 갈등 없이 서로를 인정”
정작 깨달음에는 경계도 분별심도 없는 것을...

천장 볼 수 있는 동양의 알프스 '람무스'

다음 날 오전 빵차를 타고 람무스로 출발했다. 람무스는 사천성과 감숙성의 경계에 걸쳐 자리잡은 자그마한 사찰 마을이다. 이곳에 온 서양인들은 동양의 알프스라 부르며 경치에 감탄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보다는 천장(天裝) 망자를 새의 먹이로 보시하는 티베트의 전통적인 장례법을 볼 수 있다는 점에 더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번 순례일정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을 꼽으라면 단연 람무스라 하겠다.

람무스는 전반적으로는 초원지대이지만 사찰 뒤편 산자락에는 소나무가 무성히 자란다. 그 맑은 편에는 절벽산이 있는데 그 모양새가 꼭 사람 이빨 같다 하여 이빨산이라고 불린다. 아직 풀이 돋아나지도 않았는데도 전체적으로 파스텔톤의 색조가 느껴지는 곳이다. 태양이 내리쬐긴 하나 그 열기는 그리 뜨겁지가 않고 저 멀리 산정상에는 눈도 희끗희끗 남아있다.

사람을 바라봤을 때, 동쪽은 감숙성 소재 사찰이고 서쪽은 사천성 소재 사찰이다. 람무스 역사가 수 백년도 더 된 것을 감안하자면 예전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었을진대, 아무튼 지역구분에 따라 사찰도 두 군데

로 분리되어 있고, 일주문도 따로 있다. 상점에서 만난 잠초스님의 안내로 감숙성 쪽 사찰의 경내를 방문했다. 법당 안은 전형적인 티베트 사찰의 모습으로 중앙의 큰스님 자리를 중심으로 고승의 순서로 자리하고, 앞에는 연화생보살과 아미타불, 관음보살 등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위쪽의 법당에는 역대 람무스 주지스님의 등신상이 모셔져 있으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법당에는 부처님의 불상을 모셔왔는데 정작 불상을 볼 수 없도록 문을 설치해놓고 잠가 놓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불상의 몸에서 성수가 흘러 나오는데, 이를 보고 외국인들이나 특히 타 종교인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 주지스님이 아예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람무스는 겐룩과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으로 니마파와 비교하자면 수행의 방식이 좀더 집단적이고 체계적이다. 겐룩과 스님들은 한 명의 큰스님의 암자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경전공부와 수행을 한다. 암자를 지나다 보면 안에서 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 보니 아직 계를 받지 못한 어린 사미승을

스님이 노인과 손을 흔 채 다정스럽게 담소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운데, 나의 마음에선 이상한 광경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아빨싸, 나는 두 사람의 외적 차별에 눈이 멀어 보다 근본적인 진리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사람이란 것을, 살면서 같은 것을 지향하고 기원한다는 것을, 달을 가리키는데 손을 보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초발심으로 돌아가리라.

비롯하여 비교적 단계가 높은 젊은 스님까지 한자리에서 소리 높여 경을 읽고 있는 것이 보인다. 니마파와 겐룩과 등 각 종파간의 차이를 어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잠초 스님도 “길만 다를 뿐 모두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자 방법이기도 전혀 종파간의 갈등이 없고 서로를 인정한다”고 한다.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나는 이 길을 최선으로 택하여 가는 것이고, 다

른 이는 다른 길을 최선으로 택하여 갈 뿐이라 말한다. 훌륭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대답이다. 어느 종교 어느 종파에서든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그 방법의 차별에 연연하여 반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작 깨달음에는 경계선도 분별심도 없는 것이다.

다음날 거리에서 목격한 현상은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헛된 분별심을 완전히 부숴버리게 충분했다. 이 자그마한 도시에는 하얀 모자에 청색 옷을 즐겨 입는 회족들이 함께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한 칸에 무슬림 사원도 뾰족한 탑을 높이 세워 멋들어지게 지어져 있다. 붉은 승복을 차려입은 한 티베트 스님이 전화를 걸면서 하얀 빵모자에 청색 옷을 입은 한 회족 노인의 손을 꼬옥 쥐고 있는데 회족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다소곳하다. 전화를 마친 스님이 노인과 손을 흔 채로 다정스럽게 담소를 나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운데, 나의 마음에선 이상한 광경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아빨싸, 나는 두 사람의 외적 차별에 눈이 멀어 보다 근본적인 진리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사람이란 것을, 그들이 이웃이란 것을, 그리고 그들이 살면서 같은 것을 지향하고 기원한다는 것을, 달을 가리키는데 손을 보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초발심으로 돌아가리라.

다음 날 오전 예불에 동참하면서 티베트 불교 특유의 경전공부 방법인 벤징(ཕུན་ཕོངས་, 티베트어로 초래)을 볼 수 있었다. 11시 경이 되자 서서히 스님들이 모여 들더니 예불을 드리고 나서 법당 앞 마당으로 나와 서열별로 모여 자리를 잡는다. 큰 스님이 먼저 시작을 알리는 고음을 길게 내면 스님들이 그에 응답하는 고음을 내고는 벤징을 시작한다. 한 사람이 일어나 한 명 내지 두 명을 상대로 손바닥을 치며 화두를 던지면 이에 상대방이 답을 한다. 손바닥을 치는 행위는 화두를 던지는 신호이며, 상대방에 대한 경중의 신호이며, 토론에 몰입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이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은 서로 간에 스승이자 제자가 되는 것으로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시험이자 동시에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의 갈구이기도 하다.

람무스에는 천장터가 있다. 천장이란 말 그대로 하늘에 장례를 치루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새들에게 인육을 보시하여 치루는 장례로 조장이라고도 한다. 아침에 천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도저히 현장을 참관할 마음이 나지 않아 오후가 되어 사찰 너머에 있는 천장터로 발길을 내딛었다. 한참을 굽이굽이 언덕길을 올라가니 저 너머로 오색천이 뿜어내는 천장터가 보인다. 장례식이 끝나고 후여서 그런지 아무도 없고 양치기 청년만이 천장터를 지키고 있다. 앞쪽에는 타르초가 뒤덮여 망자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곳곳에 죽은 자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나 담요들이 널려 있다. 중앙에는 풀판이 있고 주위에 하얀 가루가 흩어져 있는데, 이 풀 위에서 죽은 자를 독수리들이 먹기 좋게 분해하고 뼈를 부수는 작업을 한다. 다음 생으로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망자의 영혼이 독수리의 몸에 머물러 산자들의 땅을 굽어보지 않을까? 땅에 있는 자들 역시 하늘을 보며 망자에 대한 추억과

▶ 6면으로 계속



사람이와 같다고 해 이빨산이라고 부른다.



람무스의 천장터.



마니차를 돌리다 합장인사하는 티베트 불자들.

황금 돼지 · 황금 달마도 부처님 오신날 특별 보급 안내

일봉스님이 자신있게 내놓은 황금돼지 작품과 황금달마도 작품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백일기도 회향과 함께 순금 24K와 경명주사 금분을 섞어 정성들여 그린 작품으로 소장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해와 돼지는 삼신태몽이라 하였으니, 집이나 사무실에 소장해 놓으시면 재물이 들어오고 재수대통, 만사형통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 작품구입처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개2리 939번지
관음사 일봉스님
전화 054)763-3110 / 휴대폰 011-508-3100
입금계좌
우체국 700443-02-056838 (예금주 하종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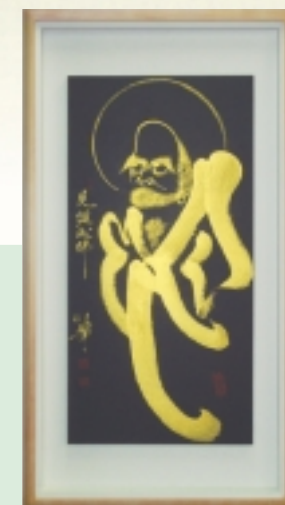
※ 작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자님께 지갑소지용 황금돼지 카드를 1장씩 드립니다.



황금 돼지 1호



황금 돼지 2호



황금 달마도 1호



황금 달마도 2호

황금 돼지

1호 크기 830mm × 600mm / 특별보시가 20만원 / 고급액자 표구
2호 크기 630mm × 580mm / 특별보시가 15만원 / 고급액자 표구

황금 달마도

1호 크기 910mm × 530mm / 특별보시가 20만원 / 원목 최고급 액자
2호 크기 670mm × 520mm / 특별보시가 15만원 / 원목 최고급 액자